



정민규/정수정 선교사

TEL: +55-11-9 1256-2087 E-mail: j_m_kyu@hotmail.com

주소 : R. Talmud Thora, 238 APTO 42 Bom Retiro, Sao Paulo-SP

CEP : 01126020

GP선교회 : 서울 송파구 문정동 77-3번지 TEL: 02-443-0883

후원계좌 : 하나은행 990 090819 170 정민규, 정수정

2022년 07월

“그리스도의 계절! 나의 소망!”

샬롬. 평강의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와 가정에 문안드립니다.

전 세계 경제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은 우리 주님의 눈과 같은 보호하심으로 언제나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가정이 한국에서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시 브라질로 돌아온 지도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그 중 영주권이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영주권 신청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정착할 때는 상파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정착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알아보니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저희 가정은 다른 지역이 아닌 상파울로 지역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을 구할 때부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가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학기 중에 소연이는 조금 알아들었지만 창연이와 태연이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가운데 수업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번 겨울방학이 한달 정도의 기간인데 이번 방학기간 동안 언어를 좀 더 공부하여 언어가 많이 늘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브라질에는 한인 사회가 많이 어려워져 많은 한인들이 브라질을 떠났습니다. 5만이었던 한인 사회는 이제 1만 5000명 정도 남아 있습니다. 브라질에 한인 교회 목회자들도 많이 떠나 남아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목회자가 없어서 예배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민규 선교사는 집에서 약 10Km 떨어진 곳에 20여명 한인과 브라질 청년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 곳을 섬기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교회가 지역

에 브라질 현지인과 한인들 사이에 빛과 소금이 역할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인디오 선교회 조직에도 많은 역할을 감당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첫째. 아직도 정착하는 부분에서 정리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잘 이루어 지도록

둘째. 브라질에 돌아와 보니 생각보다 언어를 많이 잃어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과 저희 부부가 언어를 다시 잘 배울 수 있도록

셋째. 언어로 인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수업도 이해하지 못해 점점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좋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도록

넷째. 선교사로 연차가 쌓일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충만이 더욱 간절합니다. 가정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다섯째.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국제학교도 아니고 그리 좋은 학교가 아닌데도 학비와 집세만 135만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아이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비가 점점 비싸지는데, 재정적인 부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민규/정수정 선교사(소연/창연/태연)

연락처 : j_m_kyu@hotmail.com 또는 <http://www.facebook.com/mingyu.jeong2>